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21 조선대장경의 백미



▶ 한줄요약
〈석보상절〉 제6권은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중 백미인 '녹원전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확하게 상두산 설법부터 〈반야경〉을 50세부터 21년 동안 설법하는 71세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부처님, 상두산서 설법하다


그림 · 강병호

드디어 '봄부터 가슴조이며 기다리던 내 누님 같은' 〈석보상절〉 제6권을 읽는다. 사실 연재는 〈석보상절〉 제3권보다 6권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나 3권을 연재하면서 그동안 중간본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팔상도의 내용에 충실하고 현전하는 첫 번째 책이라는 가치를 넘어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석가모니의 출생과 출가 그리고 고행에 충실한 서사인지 새삼 알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석보상절 제4권이 전하지 않아 남아있는 〈월인석보〉 제4권을 읽어보았다. 우리의 예상대로 팔상도 중 여섯 번째 '수하항마'의 내용으로 이어져 있었다. 글의 순서대로 하자면 〈월인석보〉 제4권을 읽어도 좋겠지만 이 연재가 '석보상절 이야기' 이니만큼 〈석보상절〉의 재미와 의미를 배가시키는 6권을 이어서 시작하기로 한다. 6권은 팔상도 중 일곱 번째 '녹원전법'에 해당하는 석가모니 일대기의 백미이다. '녹야원에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다'라는 뜻이지만 6권에서는 정각을 이룬 후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경전 설법과 중생을 교화시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 또한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600년 전 조선시대 구어체의 향연을 체감할 수 있는 명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확인해 보기로 하자.

세존의 상두산 설법

석보상절 제 육

세존이 상두산(象頭山)에 가셔서 용과 귀신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용과 귀신을 위하여 설법하신 것이 부처의 나이가 서른 둘이시니 주나라 목왕 6년 을유이다.

이제 정각을 이룬 세존께서 녹야원 전법을 마치고 다시 부다가야로 돌아와 가야산이라 일컫는 상두산의 설법부터 시작하고 있다. 더 이상 3권의 호칭 '태자'이거나 '보살'로 부르지 않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상두산(象頭山)은 보드가야 서북쪽 나이란자라강 우루벨라 가까이에 있는 산 이름이다. 가야산(伽耶山)이라고 하는데 빨리어로 'Gayasfa', 산스크리트로는 'Gajasirṣa', 또는 'Gayasirṣa'이다. '갈사시리사(翔闍尸利沙)'라고도 하는데 상두산은 코끼리(Gaja)의 머리를 의역한 것이고 가야산이라고 음역하기도 한다.

상두산은 당시 마가다국 최대 교단인 우루벨라 가섭 3형제 천명의 교단이 있었는데 불을 숭배하는 외도들이었던 그들을 불교로 교화하였다고 한다. 그곳에서 석가모니는 그들 교화 뒤에 용과 귀신을 위하여 설법하였다고 6권은 시작한다. 깨달은 지 4년이 된 해였다고 '법원주림'은 기록하고 있다. 〈석보상절〉 6권은 상두산 설법부터 〈반야경〉을 50세부터 21년 동안 설법하는 71세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용은 〈불조통기〉에서 용왕으로 기록되고 있다.(六年乙酉 佛在象頭山 爲龍王鬼神說法 〈佛祖統紀〉권3) '천룡팔부' 중에서 가장 위력이 뛰어나고 산스크리트로 'nāga'라고 하는데 바다 속에 살며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고 광명을 발하여 천지를 비춘다.

귀신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섭고 악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불법(佛法)을 보호하는 대범천왕 · 33천왕 · 4천왕 · 염마왕이나 팔부신중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가 부처의 나이 서른 둘이라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29세 출가 · 6년 고행 · 35세 성도와는 좀 다른 버전의 경전을 저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후라의 출가 프로젝트

부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비라국에 가서 아버님 정반왕과 아주머님 대애도, 숙부님께 다 안부를 전하여라. 또 나의 아내 야수다라를 달래어 자식에 대한 애착을 그치고 라후라를 놓아 보내 상좌가 되게 하여라. 라후라가 득도하여 돌아가서 어머니를 제도해 열반 얻음을 나와 같게 하리라."

아주머님은 대애도(大愛道)를 말씀하는 것이니 대애도가 마야부인의 언니이다. 모습이 마야부인만 못하므로 둘째 부인이 되셨다.

처음 〈석보상절〉 6권을 읽었던 20대에는 불교에 문외한이고 젊었을 때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애도가 얼굴이 마야부인보다 못 생겨서 둘째 부인이 되었다는 말이 충격이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이레째부터 자신을 키운 이모이자 어머니를 '아주머님'이라 부르는 것도 마뜩치 않았다.

한편 3권에서 싯달타 태자는 야수다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여러 훤훤 장부들과 겨루고 어렵게 결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맞이한 부인 야수다라를 훌쩍 떠나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은 후 이제 어린 아들마저 데려 오라고 하다니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러한 과정을 묘사한 대화체 말투이다. 한문 원전도 있지만 한문 문장을 이렇게 유려하게 조선시대 말투로 바꾸어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자유자재로 쓰다니 읽을수록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

> 〈석보상절〉 제 4권은 현재 失傳
> 제6권, 팔상도 녹원전법에 해당
>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의 백미
> 조선代 구어체 향연 체감 '명저'

첫 시작이니 한문 원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은 〈경률이상〉이 간략하여 〈석보상절〉과 가깝고 〈석가보〉는 좀더 자세하다. 여기서 〈석보상절〉의 '아주머님'을 원전에서는 '이모'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석가보〉에서는 '나의 이모파사파제'라고 기록하고 있어 두 책을 보아야 석보상절 협주의 '대애도(파사파제)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佛告目連。汝往迦毘羅城。問訊我父母我叔及我夷母。慰喻羅睺羅母。令割恩愛。放羅睺羅使作沙彌。母子恩愛歡樂須臾。死墮地獄各不相知。羅睺得道當還渡母。永絕生死如我今也。〈經律異相卷第七〉

爾時世尊告目犍連。汝今往彼迦毘羅城。問訊我父閱頭檀王。并我姨母波闍波提。及三叔父斛飯王等。因復慰喻羅睺羅母。耶輸陀羅令割恩愛。放羅睺羅令作沙彌。修習聖道。〈釋迦譜卷第七 釋迦子羅云出家緣記第十三〉

목련의 신통력

목련이 그 말 듣고 즉시 입정해 폈던 팔을 굽힐 잠깐 사이에 가비라국에 가서 정반왕께 안부를 사뢰었다.

야수께서 부처의 사자(使者)가 왔다고 들으시고 청의(靑衣)를 시켜 기별(소식)을 알아 오라 하셨다. 사자는 심부름 보낸 사람이다.

청의가 라후라 데려다가 사미를 삼으려 한다고 하였다. 사미는 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세간의 뜻을 접고 자비의 행적을 한다고 하는 뜻이다. 처음 불법(佛法)에 들어가 세속의 뜻이 많은 까닭에 모진 뜻을 그치고 자비의 행적을 닦아야 하므로 사미라 한다.

야수께서 그 기별 들으시고 라후라와 더불어 높은 다락 위에 오르시고 문들을 굳게 잠궈 두셨다.

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몸짓과 표정 그리고 감정의 서사가 어떠한가. 이것이 600년 된 낡고 오래된 표현으로 느껴지는가. 야수다라는 아주 기민하게 움직인다. 남편이자 이제 부처가 된 석가모니의 수제자 목련이 가비라국에 나타났다. 남편의 안부도 궁금하지만 무슨 일로 왔는지가 더욱 궁금하다. 어쩌면 야수다라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출가한지 6년동안 갖은 고초를 겪고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라후라를 데려가려고 왔다는 것이다. 얼른 라후라를 데리고 목련이 찾지 못할 높은 누각으로 가서 문을 굳게 잠그고 아들을 보호한다. 결코 아들마저 뺏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어머니의 결기가 보인다.

신통 제일 목련의 '폈던 팔을 굽힐 사이에'라는 표현이 재미있다. '눈 깜짝할 사이'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표현인 것일까. 〈월인천강지곡〉은 138장부터 시작한다.

일백삼십팔장

세존이 목련이를 보내시어 야수다라께 기별하여 라운이를 꼭 보내라

목련이 오는 줄 야수다라께서 들으시므로 라운이를 깊이 감추시니〈월인50b〉

목련과 야수다라의 기싸움

목련이 야수의 궁궐에 가 보니 문을 다 잠그고 소식 들을 사람도 없었다. 즉시 신통력으로 다락 위에 올라가 야수 앞에 섰더니 야수께서 보시고 한편으로는 걱정하시고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며 마지 못해 일어나 절하시고 '앉으십시오' 하시고 세존의 안부 물으시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련이 말씀드렸다.

"태자 라후라의 나이가 이미 아홉 살이므로 출가시켜 성인의 도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함은 짧은 동안이거니와 하루아침에 목숨을 마치고 모진 길에 떨어지면 은애(恩愛)를 멀리 여의고 어지럽고 아득하여 어미도 아들을 모르고 아들도 어미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라후라가 도리를 얻어서 돌아와 어머님을 제도하여 네 가지 수고(受苦)를 여의고 열반을 얻게 되기를 부처같으시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수고는 생로병사이다.

母子恩愛。歡樂須臾。死墮地獄。母之與子各不相知。窈窈冥冥永相離別。受苦萬端後悔無及。羅睺得道當還度母。永絕生老病死根本。得至羅漢如我今也。〈釋迦譜卷第七 釋迦子羅云出家緣記第十三〉

그야말로 흥미진진하지 않은가. 지금 당장 21세기 사극 드라마로 만들어도 손색없는 명문장들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목련과 야수다라의 긴장감 도는 이 대화는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 부처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이 제일이라는 목련이 야수다라의 논리정연하고 카리스마 있는 반박에 속절없이 지고 마는 유려한 대화는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